

■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일주일째

직원은 모르고 손님은 귀찮아하고...

노래연습장·유형시설 등 출입시스템 마련 거의안해 마스크 착용 안해도 입장

“QR코드 출입 시스템이 있다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청 대학로의 한 노래주점에 들어서자 주점직원은 일행 숫자만 물을 뿐 QR코드 출입 시스템 도입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노래연습장·주점, 헌팅포차, 실내 공연장 등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도입된지 일주일 째, 제주 시내 주요 변화가의 노래연습장, 유형시설 등을 방문한 결과 안내·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QR코드 출입 시스템 자체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용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또 “노래방을 이용하려면 QR코드를 입력해야 한



제주시청 대학로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한 손님이 QR코드를 찍고 입장하고 있다.

다”는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 홍보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시에 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 오후 10시 제주시청 대학

로의 한 노래주점, ‘발열자,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금지’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었으며 입장하기 위해 선 수기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야 했다. 하지만 한 손님이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대충 휘갈겨 썼음에도 다시 적어달라는 요구는 없었으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없이도 입장할 수 있었다. 직원은 “전달 받은 바 없다, 손소독제를 입구에 비치해 뒀으니 가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일부 방역지침이 지켜지는 노래연습장에서도 QR코드 출입 시스템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제주시청 대학로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의 업주는 “시청에서 종종 점검이 오는 데, QR코드에 대한 안내는 아직 없었다”며 “뉴스에서 봐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제주도는 해당 지역이 아닌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무인으로 운영되는 노래연습장은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문만 붙어있을 뿐이었다.

이날 오후 8시반~10시까지 제주시청 대학로, 연동 누웨모루거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5개소, 노래주점 3개소, 술집 1곳을 방문한 결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곳은 1곳 뿐이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곳은 대형프랜차이즈 소속 노래주점으로, 이곳에선 개인 핸드폰의 QR코드, 신분증, 발열체크를 끝낸 후 입장을 허가하고 있었다. 직원은 “본사 지침이기도 하고, 며칠 전 점검 온 시청 공무원이 QR코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다”라고 말했다. 이 노래주점에 입장하기 위해 10여분 쯤 대기 중이던 한 손님은 “QR코드, 신분증, 발열체크까지 일일이 확인하는게 번거롭긴 하지만, 꼭 필요한 절차라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점검이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주 교육과 홍보물 배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6번째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북미 방문 이력 도민 지난 11일 입국해 입도

제주지역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북미 방문 이력 이 있는 도민 A씨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16일 오후 3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방역당국 조사 과정에서 “6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무증상으로 입국 후 당일 오후 제주로 입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입도 직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A씨의 부모는 자택 내 격리 중인 A씨를 고려해 다른 거주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2일 2차레 검사 결과 ‘미결정’ 판정을 받았고 16일 오전

진행된 3번째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지침에 따르면 ‘검사결과, 미결정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잔여 검체로 재검사 후 최종 결과 판정을 내리게 되며, 필요시 자체적으로 검체 재채취·재검사 등을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차레 검사결과 ‘미결정’ 판정 이후, 방역당국의 판단 하에 16일 3번째 검사를 진행했다.

배종면 제주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의 경우 최종 확진 판정 관련 검체 채취일이 16일이라는 점, 2일전인 14일은 이미 자가격리 중이었다는 점, 동거 가족 없이 홀로 자가 격리를 진행했다는 점,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접촉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입도 절차에 따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진받은 경우는 도내 10번·12번째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태윤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2명 고발

지인 운전하는 렌터카 타고 대형마트 방문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수칙을 어겨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또 다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와 B씨에게 16일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 착용을 조치하고,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11일 이후 두 번째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함께 제주도에 입도한 이후 14일 영등포 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제주에 입도한 이후 14일에 확진자 접촉자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제주보건소로 직접 신고했다. 당초 이들은 도내 한 격리시설로 격리조치됐으나 지인 집에서 자가 격리를 희망해 15일 오후 2시쯤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한 뒤 격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 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15일 오후 6시쯤 엠설치 등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방역당국이 오후 7시쯤 현장에서 출동했다.

현장 확인결과 이들은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대형마트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 앱을 미설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앱을 설치했으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새벽 1시쯤 ‘음성’임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즉각 복귀한 뒤 별도 마련한 주거 시설에서 다시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16일 안심밴드 착용을 적용하고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총 292명이다. 이태윤기자



남그늘 아래 16일 제주시 구좌읍 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비자림로 공사 반대단체 감사원에 도 공익감사 청구

비자림로(대전·송당) 도로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감사원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모임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행해진 비자림로 공사의 행정 참여와 위법행위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위협으로 내몬 행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763명의 청구인이 참여한다.

이들은 감사 청구사항에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3차레 중단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난 5월 27일 공사재개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도로건설공사 방안에 대한 대안검토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을 적시하며 “제주도는 공익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 오늘부터 사흘간 80~150mm 비 예보

제주지방에 오늘(17일) 오후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낮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18일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7~19일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80~150mm이며, 산지·남부 등엔 2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강한 비로 인해 침수피해 등이 우려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축
CONGRATULATIONS

취 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양형석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 임원일동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귀포시지회 회원일동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시지회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최은미
유진장애인주간활동센터 원장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백인협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김남식
청봉환경 대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봉개동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장 김정배 외 회원일동**